

碩士學位論文

光陽勞農聯合會의 組織과 活動

2009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徐 洋 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曹 圭 泰

光陽勞農聯合會의 組織과 活動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Gwangyang Laborers and Farmers Association

2009年 6月 8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徐 洋 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曹 圭 泰

光陽勞農聯合會의 組織과 活動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Gwangyang Laborers and Farmers Association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8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徐 洋 民

徐洋民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8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광양노동연합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920년대 광양지역의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1920년대 광양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어 광양소작인상조회와 광양노동연합회의 조직과 주도인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광양소작인상조회와 광양노동연합회의 농민과 노동자 권익 옹호 활동과 양 단체의 회원들이 전개한 사회주의단체 참여 활동 및 신간회 활동을 추적해보았다.

전라남도의 다른 군에 비해 인구와 경지면적이 적었던 광양지역은 소작인의 비율이 높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채지주가 많았다. 부채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지세를 징수하고, 함부로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았다. 따라서 광양지역의 소작인들은 지주에 대한 불만이 심각하였다.

그런데 3·1운동의 결과로 획득한 ‘문화통치’의 공간 하에서,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되고, 1921년 8월에 조선소작인상조회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들은 지회를 조직하고 소작인 등의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광양의 특수한 사정에 영향을 받아, 광양의 소작인인 鄭晋武와 金完根 등은 1923년 1월 광양소작인상조회를 조직하였다. 정진무가 1922년 말 서울에 가서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간부들을 만나고 그 취지서를 갖고 와 지역의 유지들과 협의한 후,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광양지회로서 광양소작인상조회가 설립되었다. 광양소작인상조회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共存共榮을 표방하고, 지주의 소작인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와 소작인의 지주에 온건한 태도를 촉구하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상호부조’를 강조하는 단체였다.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정진무와 김완근은 외부의 후원을 얻기 위해, 1923년 2월 28일 순천농민대회에서 순천, 여수, 보성 등지의 농민운동지도자들과 南鮮農民聯盟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남선농민연맹회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전라남도 지방의 농민단체 조직 및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진무와 김완근 등은 광양지역에 소작인단체를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23년에 봉강소작인회, 옥곡소작인회, 세풍소작동맹회, 도월소작인회, 광양면소작인회, 다압소작인회, 옥룡소작인회 등이 창립되었고, 1924년 1월에는 골약소작인회 등이 조직되었다. 1923년 말 경 광양지역 소작인단체의 회원은 3,53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양소작인상조회는 회장제로 운영되었고, 회장 등의 임원진에는 지주와 친지주적인 인물이 다수 포진해 있어 소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정진무 등의 소작인들은 1924년 2월 회의를 열어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운영체제를 하의상달식인 위원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날 광양소작인상조회의 명칭을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변경하였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조직이 변경된 후, 지주와 지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소작인들이 이탈함에 따라서 광양소작인연합회의 회세는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구성원이 동질화 되고, 운동 목표도 일치되었으므로, 광양소작인연합회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24년에 들어와 광양지역에는 노동회의 조직이 이어졌다. 1924년 2월 옥룡면에 옥룡노동친목회가 설립되었고, 1924년 3월 인덕면에 인덕노동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북성회계의 전라노동연맹회와 남선노동동맹의 도움을 받아, 1924년 3월 16일 鄭順和·정진무·김완근 등에 의해 광양노동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1924년 4월 전국노동단체로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이 때 광양지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인 정진무는 조선노동총동맹의 발기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정진무는 조선노동총동맹의 방침에 따라 광양 내 노동단체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24년 5월 16일 광양소작인회연합회와 기타 15개 단체의 대표자와 함께 광양노동연합회를 창립하였다.

광양노동연합회는 계획의 심의·의결 및 평가·감사 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실제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상무집행위원회를 두었다. 상무집행위원회는 서무부·재무부·교육부·노동부·소작부의 5개 부서를 두

었다. 이 기관을 주도한 인물은 정진무·김완근·정순화 등이었다.

광양소작인연합회와 광양노농연합회는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두 단체는 지주들의 부당한 소작권 이동, 지세 징수, 무료 부역 등에 저항하여, 소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지방의 군소노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양노농연합회 주도인물들은 업무방해나 가택침입죄로 4월, 혹은 1년 등의 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의 핵심 주도인물인 鄭晋武, 金完根, 鄭順和, 辛命俊 등은 북성회계의 남선농민연맹회, 전라노농연맹과 조선노농총동맹 등의 조직과 운영에 참여하여 이 단체들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광양노농청년회와 광양청년연맹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들은 노농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6년 경 체포되어 1년 내지 2년의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나온 정진무, 김완근, 정순화 등은 1929년 신간회 광양지회를 조직하였다. 비록 신간회가 1931년 해체된 데 영향을 받아 광양지회도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통합적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소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농민운동단체였다. 그렇지만 그 주도인물들이 사회주의계 노농단체와 사상단체 및 조선공산당, 그리고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점에서, 이 단체는 민족의 해방을 지향하는 민족운동 단체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목 차

머리말	1
I. 광양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	4
II. 광양노농연합회의 조직	13
III. 광양노농연합회의 활동	23
1. 소작인 권익 보호활동	23
2. 노동자 권익 보호활동	32
3. 사회주의단체 조직 및 참여 활동	33
4. 신간회 활동	36
맺음말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4

표 목 차

【표 1】 광양군의 인구구성	5
【표 2】 광양군의 경지면적	6
【표 3】 1920년대 말 광양군의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화전 민 호수	7
【표 4】 1920년대 초 광양군의 자소작농, 소작농, 궁농의 호수(1923)	7
【표 5】 일본인 지주에 소속된 소작인 현황	8
【표 6】 관내외지주의 소작지 면적의 비율	8
【표 7】 1920년대 후반 광양군 면별·직업별 인구	9
【표 8】 1920년대 광양군내 조선인 학교 현황	10
【표 9】 광양노농연합회 창립 당시 참여한 군소단체와 주도인물(1924. 5. 16)	19

그 립 목 차

【그림 1】 1920년대 후반 광양군 지도	4
【그림 2】 광양노농연합회 조직도	20
【그림 3】 광양노농회 조직도	22

머리말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종래의 관유지, 무주지, 무신고지, 산림의 90%이상을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개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토지를 직영하거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不二興業 등의 일본인회사와 일본인들에게 불하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지주들의 토지소유권이 강화된 반면에, 소작인들은 대대로 경작하던 관행이 철폐되고 계약기간만 소작하게 됨으로써 소작권이 약화되었다. 소작제 아래에서 지주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농민에게 관개사업비의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을 거두기도 하였다. 작은 규모의 자작농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였고, 소작인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고리대금업으로 농촌에 침투하여 빚을 갚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를 싼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농장을 늘려나갔다. 이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토지 침탈 정책으로,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다.¹⁾

3·1운동 후 소위 문화정책으로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자, 농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농민단체가 설립되었다. 1920년에 조선노동공제회가 설립되었고, 1921년 조선소작인상조회도 설립되었다. 이들 농민·노동단체는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청년회 농촌부가 중심이 되어 정신교육, 보건교육, 농사개량지도 등의 계몽운동과 협동운동 등의 농촌사업에 진력하였다. 천도교는 1925년 조선농민사를 설립하여 야학 등을 통해 농민계몽운동을 전개하고, 공생조합과 공작계의 운영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농민단체와 농민조직의 활동에 힘입어 농민들은 그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지주의 소작권 이동과 소작율 인상 등에 대하여 소작쟁의 등으로 저항하였다.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의 전라남도 岩泰島소작쟁의, 황해도 재령군 北栗面의 소작쟁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조동걸,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53~58쪽.

이들 지역 외에 전남 광양지역에서도 소작쟁의가 빈번히, 그리고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1923년 4월 고을의 소작료 징수와 소작권 이동을 남발한 金谷一二, 不藤, 森本 등 日人농장을 상대로 한 소작쟁의나 1925년 3월 새로 매입한 논 700두락의 기존 소작인 전원에 대해 소작권 이동을 단행한 부재지주 순천의 金學模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이 처한 현실과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양지역의 농민운동을 규명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광양지역의 농민의 상태와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검토가 있었다. 이균영과 박재상은 일제시대 광양지역의 민족운동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1920년대 광양지역의 농민운동을 고찰하였다.²⁾ 그리하여 광양지역의 1920년대 광양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옥룡노동친목회·인덕노동회·광양노동회·도월노동회·광양노동회의 실재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1920년대 광양지역의 노농운동을 주도한 단체와 그 주도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리고 광양지역의 노농단체와 전라도 및 전국 노농단체와의 연관성도 검토하지 못하였다. 또 1920년대 광양지역의 소작운동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광양지역 노농단체의 주도인물들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공산당의 조직과 운영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실은 관심을 두어 살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광양노농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1920년대 광양지역의 농민운동을 다루려고 한다. 첫째 장에서 필자는 광양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광양지역의 노농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밝힐 것이다. 둘째 장에서는 광양노농연합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여러 명칭의 변천과정과 주도인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광양군 각 면, 리 단위 군소 농민운동단체의 조직과 주도인물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중앙과 광양노농연합회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셋째

2) 이균영, 「일제하 광양인의 민족적 저항」, 『광양군지』, 광양군, 1983, 319-336; 박재상, 「일제하 광양인의 민족적 저항」, 『광양시지』 1, 광양시, 2005, 695-722쪽.

장에서는 광양노동연합회의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주의단체 참여 활동 및 신간회 활동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첫째, 『왜정시대인물사료』와 조선총독부의 정보문서를 활용하였다. 둘째, 『소작관행조사서』(전라남도, 1924) 등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경제관련 서적을 참고하였다. 셋째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의 신문을 검색하여 관련 기사의 도움을 받았다. 넷째 주도인물들의 신문조서와 판결문, 공적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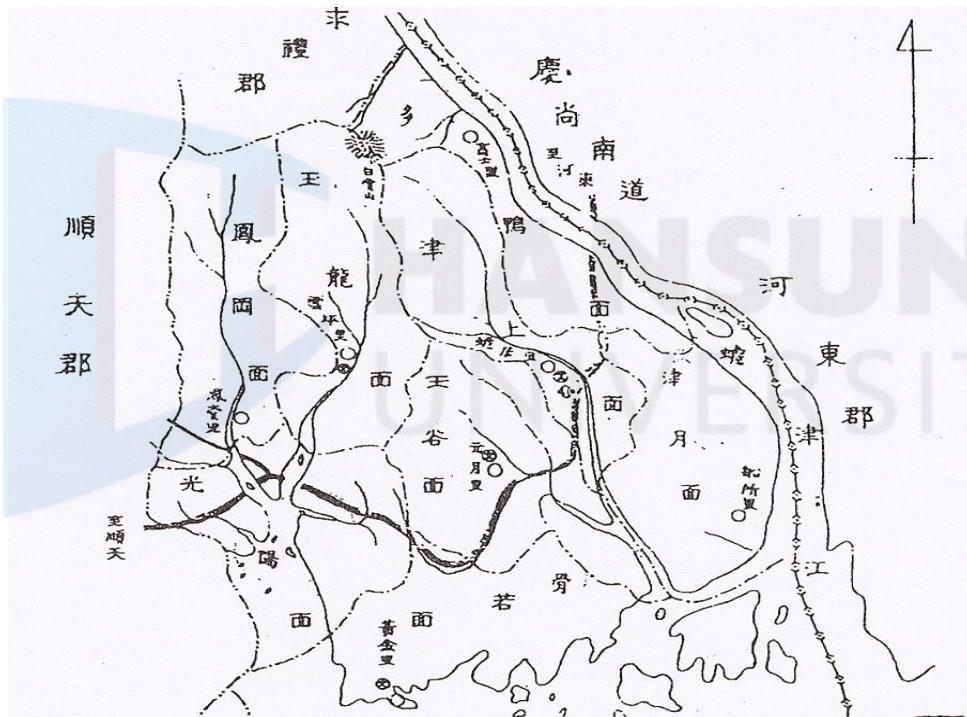


I. 광양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

1920년대 광양지역의 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인구의 구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광양지역의 사회적 여건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광양군의 행정구역은 1920년대 전반 光陽, 仁德, 骨若, 鳳岡, 玉龍, 玉谷, 津上, 津月, 多鴨의 9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³⁾, 1925년 4월 1일 인덕면이 광양면에 편입되어 8개면으로 편제되었다.⁴⁾ 1920년대 광양군의 행정구역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920년대 광양군 지도



3) 광양군지편찬위원회, 『광양군지』, 광양군, 1983, 354쪽.

4)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 1권, 도서출판 홍익기획, 2005, 788쪽.

위의 그림에 의하면, 광양면과 골약면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지가 넓고, 옥곡면·진월면과 옥룡면·진상면도 산 사이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경작지가 넓은 편이다. 그러나 봉강면과 다압면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지가 좁다. 1920년대 후반 옥룡면, 옥곡면, 봉강면에는 금은광이 위치하여 노동자들이 광산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⁵⁾

광양지역의 인구 및 그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광양군의 인구 구성

구분	조선인		일본인(내지인)		외국인(중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광양군	10,757	55,589	133	449	7	21	10,897	56,059
전남	405,828	2,080,057	8,543	35,536	432	1,647	414,803	2,160,396
군평균 인구	17,446	90,437	371	1,545	18	71	18,034	93,930
전남 대비(%)	2.65	1.90	1.55	1.26	1.62	1.27	2.26	2.59
군평균 대비(%)	61.6	61.4	35.8	29.0	38.8	29.5	60.4	59.6

『全羅南道事情誌』 하권, 전라남도, 1930, 27~33쪽을 토대로 작성.

위의 【표 1】에 의하면 1928년도 당시 광양군 인구는 56,059명이었다. 이는 전라남도 총인구의 2.59%를 차지하였고, 전라남도 23개군(제주도 포함)의 평균인구 93,930명의 59.6%에 해당되었다. 순 조선인 인구는 55,589명이고, 일본인은 449명이었다. 일본인의 비중은 0.8%로 전남의 다른 군의 일본인 비율평균 1.6%에 비추어 보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광양지역의 소작쟁의가 많았던 것은 부채지주나 일인지주의 횡포가 심했던 지역임을 짐작하게 한다.

광양지역의 경지면적은 7,706.3정보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5)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 1권, 도서출판 홍익기획, 2005, 705쪽.

【표 2】 광양군의 경지면적

(단위 : 정보)

구분	논			밭			화전	합계
	토지대장 등록경지	토지대장 미등록경지	소계	토지대장 등록경지	토지대장 미등록경지	소계		
광양군	5,797.8	27.9	5,838.7	1,838.7	21.2	1,859.9	20.7	7,706.3
전남	204,294.7	10,610.4	214,905.1	82,176.6	9,765.8	91,942.4	263.6	307,011.1
전남 대비(%)	2.8	0.2	2.7	2.2	0.2	2.0	11.6	2.5
군평균	8,882.5	461.3	9,343.7	3,572.9	424.6	3,997	11.4	13,348.3
군평균 대비(%)	65.3	6.0	62.3	51.4	5.0	46.5	181.5	57.7

『全羅南道事情誌』 하권, 전라남도, 1930, 131쪽을 토대로 작성.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경지면적은 7,706.3정보로서 전남의 총 경지면적 307,011.1정보의 2.5%에 해당하였고, 이는 전라남도의 군 평균 경지면적 13,384.3정보의 57.7%에 해당하는 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광양군은 자연조건이 백운산을 중심으로 4개의 산줄기가 광양만을 향하여 뻗어 있고 그 사이로 3개의 계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경지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1923년 초 광양지역의 대지주는 19명으로, 이 중에서 경작을 하지 않는 대지주는 1명이고, 18명은 일부 경작을 하는 지주였다. 그리고 광양지역 지주의 수지상황을 살펴보면, 20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수입이 16,200엔이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이 2,380엔이었으며, 5정보 이상의 중지주는 수입이 2,400엔이고, 수익이 585엔이었다. 그리고 1정보 이상의 소지주는 수입이 950엔이고 수익이 102엔이었으며, 1정보 이상의 細地主는 수입이 585엔이고 수익이 43엔이었다.⁶⁾

1920년대 광양군의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화전민 호수는 【표 3】과 같다.

6) 전라남도, 『소작관행조사서』, 전라남도 내부부, 1923, 68쪽.

【표 3】 1920년대 말 광양군의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화전민 호수

(단위: 호수)

구분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화전민	합계
광양군	142	847	3,302	3,910	304	8,505
구성비율	1.7	9.9	38.8	46.0	3.6	100
전남	6,598	63,930	129,735	148,928	2,343	349,857
구성비율	1.9	19.3	37.1	42.0	0.7	100
군평균	286	2,780	5,640	6,475	101	15,211
구성비율	1.9	18.1	37.0	42.4	0.6	100
전남대비(%)	2.2	1.2	2.5	2.6	13.0	2.4
군평균대비(%)	49.6	30.4	58.5	60.3	299.0	55.9

『全羅南道事情誌』 상권, 전라남도, 1930, 126~127쪽을 토대로 작성.

위의 【표 3】에서 보이듯이 광양군의 지주는 구성 비율이 전체농가의 1.7%에 불과하였다. 자작농가의 구성 비율은 전체의 9.9%이었다. 지주와 자작농을 합한 비율은 11.6%로, 이는 전라남도의 지주와 자작농의 비율 21.2%나 전국 군 평균 지주와 자작농의 비율 20%의 절반정도에 불과하였다. 자소작 농가는 38.8%였고, 소작농가는 46%였다. 화전민농가는 3.6%였다. 순수소작농가와 자소작농가가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남의 군 평균 79.1%에 비해 5.7%가 높은 것이었다. 그리고 화전민의 증가율은 3.6%로 군 평균화전민 증가율 0.6%에 비하여 현격히 높았다. 생계가 어려운 자소작농가, 소작농가, 화전민농가의 호수는 모두 합해 7,516호로, 이는 전체의 88.4%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광양지역의 농민은 전남의 다른 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초의 광양군의 자소작농, 소작농, 궁농의 호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⁷⁾

【표 4】 1920년대 초 광양군의 자소작농, 소작농, 궁농의 호수(1923)

(단위: 호수)

자소작농	소작농	계	궁농	합계
3,910	3,315	7,225	768	7,993

7) 전라남도, 같은 책, 101쪽.

【표 4】에 의하면, 1923년에 자소작농호는 3,910호, 소작농호는 3,315호, 궁농호는 768호였다. 이 내용과 【표 3】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1923년에 비해 1930년에는 자소작농의 호수가 줄고, 소작농과 궁농의 호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양지역 농민들의 상황은 대체로 1920년대 전반에 비하여 1920년대 후반에 더 열악해졌던 것이다.

【표 5】 일본인 지주에 소속된 소작인 현황

(단위 : 호수)

구분	소작관계농가호수(A)	일본인 지주에 속한 조선소작인농가호수(B)	(B)/(A)
광양군	3,910	659	16.9
전남	238,469	85,532	35.9
전국	2,093,106	320,294	15.3

『朝鮮ノ小作慣行』하권 속편, 朝鮮總督府, 1932, 78~82쪽, 같은 책 상권, 126~127쪽을 토대로 작성

위의 【표 5】에서 광양군의 총 소작인 호수 3,910호의 16.9%인 659호가 일본인 지주에 속한 소작인 호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일본인 지주에 속한 소작인 호수는 총 소작인 호수 238,469호의 35.9%에 해당하여 비교적 일인지주에 속한 소작인 호수가 적은 편이었다. 광양군의 일인지주에 속한 소작인 호수 비율은 전국 비율과 비슷하였다.

군내지주와 군외지주의 소작지면적의 비율을 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관내외지주의 소작지 면적의 비율

(단위 : %)

구분	군내외 지주 소작지 면적의 비율		
	군내지주의 소작지	도내지주의 소작지	도외지주의 소작지
광 양 군	59	27	14
전 남 평 균	65	22	13

『朝鮮ノ小作慣行』하권 속편, 조선총독부, 1932, 3-4쪽

위 【표 6】에서 지주의 소작지를 100으로 보았을 때 관내 지주가 그

중 59%를 차지하고, 道內 부재지주에 속한 소작지가 27%이었으며 道外지주는 14%를 점유하였다. 부재지주의 소작지는 전라남도의 35%에 비해 41%로 6%가 더 많았다. 부재지주는 소작인과 직접 대화가 없었으므로 사음의 재량권이 넓어 사음들의 횡포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광양지역에서 부재지주와의 소작쟁의가 심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광양지역의 1920년대 후반 면별 직업별 통계를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1920년대 후반 광양군 면별 · 직업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광양면	봉강면	옥룡면	골약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합계	구성비
농업	5,482	1,800	3,446	3,716	1,902	3,111	3,213	2,360	25,030	41.9
수산	16	-	-	1,051	160	40	223	4	1,494	2.5
광업	734	9	15	67	-	-	-	-	825	1.3
공업	273	224	166	20	54	52	92	68	949	1.7
상업	509	32	37	110	104	113	120	93	1,118	1.9
교통	51	1	-	7	1	1	18	28	107	0.2
공무, 자유	131	15	15	12	18	34	25	23	273	0.4
가사사용인	175	31	40	61	40	40	64	35	486	0.8
기타	431	22	157	64	129	154	323	113	1,393	2.3
소계	7,802	2,134	3,876	5,108	2,408	3,545	4,078	2,724	31,675	53.0
무직자	8,153	2,214	2,627	3,679	2,828	2,709	3,749	2,114	28,073	47.0
합계	15,955	4,348	6,503	8,787	5,236	6,254	7,827	4,838	59,748	100

『(昭和五年) 朝鮮國勢 調査報告』 5권, 朝鮮總督府, 1930, 84-85쪽.

【표 7】에서 광양군의 직업별 구성 비율을 보면 농업이 41.9%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농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다. 무업자가 47%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적으로 임금을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노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농민의 유희인력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업자를 업종별 구성 비율에 따라 농업에 속하는 인구를 산출하면

37.1%가 나온다. 이를 농업인구 41.9%에 합산하면 79%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된다. 수산업에 1,494명이 종사하여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해태를 광양군 골약면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광업이 825명으로 1.3%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26년도부터 금광, 은광, 아연광 등이 발견되면서 광업권이 10개 광구에 허가가 난 후 광업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조건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계속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가사사용인이 486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어 부유층에 예측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으로 광양지역엔 소작쟁의나 노동쟁의 등 노농운동의 계기가 성숙되어 있었다.

1920년대 광양군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는 보통학교가 5개교가 있었고, 심상고등소학교가 1개교가 있었다. 보통학교의 경우 광양공립보통학교만이 1911년에 개교하였고, 나머지 4개교는 1920년대에 개교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광양농민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은 주로 광양공립보통학교 출신들이었다. 광양군내의 조선인 학교 현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1920년대 광양군내 조선인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설립일	최초학생수	학급수	현재학교명
광양공립보통학교	광양면	1911년 09월	남자 507명 여자 104명	9학급	광양서초등학교
섬거공립보통학교	진상면	1920년 09월	남자 173명 여자 13명	4학급	진상초등학교
하포공립보통학교	골약면	1921년 09월	남자 90명 여자 7명	2학급	골약초등학교
옥룡공립보통학교	옥룡면	1926년 10월	남자 79명 여자 5명	2학급	옥룡초등학교
진월공립보통학교	진월면	1926년 10월	남자 21명 여자 6명	2학급	진월초등학교

『全羅南道事情誌』 하권, 1930, 40쪽, 『光陽市誌』 2권, 2005, 287~351쪽.

위 【표 8】에서 광양면의 광양공립보통학교가 9학급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개교 시기도 가장 빨랐다. 광양지역 농민운동이 1922년도부터 시

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광양공립보통학교 출신들이 광양농민운동에 대거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종교기관으로서는 주로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항일 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 먼저 천도교에 대해 살펴보면, 1915년 광양지역에 처음으로 천도교 교구가 설립되었다. 황병수와 그의 부인 권병하가 가산이 탕패함에도 불구하고 전 교실을 자기 집에 정하고 래왕 손님을 접대한 결과로 교호가 늘어 교구까지 설립되게 되었다.⁸⁾

천도교 광양교구에는 교구장, 공선원, 서기, 강도원, 금융원, 전제원, 순회교사, 전교사 등 직책의 인물들이 있었다.⁹⁾ 1921년 5월 29일 광양천도교회당에서 개최된 대강연회 당시 400여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1922년 2월 경 천도교광양교구에는 宗法師 1인, 宗務師 1인, 敎區 宗務員 2인, 각 면 宗務員 3인이 선출된 것¹⁰⁾으로 보아, 광양군의 천도교세는 상당하였던 것 같다. 또 당시 천도교청년회가 전국에 널리 조직되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아 광양교구에도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천도교광양청년회에서는 강연회 등을 통하여 농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¹¹⁾ 이러한 천도교광양교구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단체창립의 기틀이 다져졌고, 이 기틀 위에서 광양지역 농민운동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1907년 新黃里교회가 설립되었고, 1908년에 광양읍교회, 大芳里교회, 熊洞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09년에 蟾巨里교회, 栢岩里교회, 旨郎里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19년에 鶴洞교회, 烏紗里교회가 설립되었고, 1920년에 大仁島교회와 금호도교회가 설립되었다. 1921년에는 元堂里교회와 廣浦里교회가 설립되었다. 기독교 신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920년대 이전에는 교세가 그리 크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차츰 교세가 불어나고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이 싹트면서 3·1운동에 참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광양의 기독교는 농민운동단체 조직이나 단체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였

8) 천도교, 『천도교회월보』 57호, 천도교중앙총부, 1915. 언문부 30쪽.

9) 천도교, 『천도교회월보』 교구임원록(제 51호부터 제104호까지),

10) 『동아일보』, 1922. 2. 27. 4면 4단, <광양천도교총의회>.

11) 『동아일보』, 1923. 5. 14. 4면 5단, <광양소작회강연>.

다.¹²⁾ 기타 불교나 원불교, 천주교의 경우는 1920년대 광양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광양지역의 농민에게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 3권, 도서출판홍익기획, 2005, 107~115쪽.

II. 광양노동연합회의 조직

1920년 4월 11일 朴重華·朴珥圭·高順欽 등의 인사들에 의하여, 노동자의 지식계발·품성향상·환난구제·직업소개·저축장려·위생장려·기타 일반노동상황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노동공제회가 설립되었다.¹³⁾ 그리고 1921년 8월 27일에는 ‘지주와 소작인간의 상호부조’를 표방하는 조선소작인상조회가 친일분자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다.¹⁴⁾ 이후 이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전남지역에도 1922년 광주·영광·영암·나주·장성·구례·화순 등지에 조선소작인상조회의 지회가 설립되었다.¹⁵⁾

그런데 1922년 경 광양지역에서는 지주들이 지세금을 부과하고, 소작료를 지나치게 받고, 소작권을 마음대로 이동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소작인에게 부역을 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또한 솜음들은 私製한斗量에 의해 高峯으로 소작료를 받는 등 그 횡포가 심했다. 이에 소작인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다.¹⁶⁾ 요컨대 당시 광양에서는 소작인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단체의 조직이 요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소작인을 위한 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광양에서도 1923년 1월 2월 광양소작인상조회가 설립되었다.¹⁷⁾ 鄭晉武는 서울에 가서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간부들과 협의한 후, 그 취지서를 가지고 와서 광양의 유지들과 협의하였다.¹⁸⁾ 1923년 1월 2일 광양군 청년회관에서는 소작문제로 소작인 대표 70여명이 모여 소작인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¹⁹⁾, 이 때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광양지회로서 광양소작

13)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 운동」, 『사회와 역사』 3권, 1986, 83-88쪽.

14) 홍영기, 「1920년대 초 조선소작인상조회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호, 1994, 180쪽.

15) 홍영기, 같은 글, 183쪽.

16) 『동아일보』, 1923, 1, 23, 3면 4단, <속기하는 농민운동, 전라남도 광양군에도 분기>.

17) 전라남도, 앞의 책, 123쪽.

18)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7쪽. 『왜정시대인물사료』는 일제시기 인물과 단체의 요시찰 정보를 수록한 작성자 미상 문서로서 일제시기에 활동했던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등 주요 반체제 인사의 신상과 각종단체 및 언론, 출판사의 연혁 등을 6권에 걸쳐 기록한 문서이다.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인용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자료로서 경희대 도서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

19) 『동아일보』, 1923, 1, 23, 3면 4단, <속기하는 농민운동, 전라남도 광양군에도 분기>.

인상조회가 창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광양소작인상조회의 회장은 朴桂鎭이었고²¹⁾, 부회장은 鄭晉武였다.²²⁾ 박재진의 약력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조선소작인상조회가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조직이란 점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광양지역의 지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883년 출생하여 전라남도 광양군 光陽面 仁東里 351번지를 본적으로 두고 있던 정진무는 당시 옥룡면 운평리 478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19세까지 한학을 배웠다. 2,0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그는 소작농업을 하였지만 자신의 농업수입과 음식점을 경영하던 처의 수입으로 중류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는 1921년부터 소작운동에 종사하고 있었다.²³⁾ 그리고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주도인물로 金完根이 있었다. 1875년생인 金完根은, 본적과 주소가 전남 광양군 광양면 구산리 134번지이고, 부친이 판관을 지낸 양반 출신이었다. 그는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부모와 처 그리고 5명의 자녀 등 9명이 한 집에서 소작농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²⁴⁾ 또한 鄭源善·卞正燮(驚鉉)·呂東琪(玄俊)·徐三植 등이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주도인물이었다.²⁵⁾

鄭晉武와 金完根 등은 면의 중심지에 소작인단체를 비롯한 노농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에 봉강면의 봉강소작인회, 옥곡면의 옥곡소작인회, 광양면 世豐里의 세풍소작동맹회, 仁德面 道月里의 도월소작회, 광양면의 광양소작인회, 多鵬面의 다압소작회, 玉龍面의 옥룡소작인회 등이 창립되었다.²⁶⁾

20)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7쪽 ; 전라남도, 『소작관행조사서』, 1923, 123쪽. 『왜정시대인물사료』에는 ‘소작상조회(광양)’으로, 『소작관행조사서』에는 ‘광양소작인상조회’로 명칭이 각기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소작관행조사서』에 기재된 다른 단체의 명칭으로 보아, ‘광양소작인상조회’가 정식 명칭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작상조회(광양)’은 조선소작인상조회 광양지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정시대인물사료』에는 광양노농연합회의 설립 일을 1923년 1월 2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는 광양노농연합회의 전신인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창립일로 판단된다.

21) 『동아일보』, 1923. 5. 14, 4면 5단, <광양소작회 강연>. 이 기사에 의하면 광양소작회의 회장이 朴桂鎭으로 되어 있다.

22)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7쪽.

23) 「정진무 피의자신문조서」(1926. 8. 24), 「정진무 피의자소행조서」(1926. 8.30),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회의사건)』.

24) 「김완근 피의자신문조서」(1926. 8.24),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회의사건)』 ; 이균영, 『신간회연구』, 367쪽.

25) 광양군, 『광양군지』, 광양군 내부부, 1983, 325쪽.

한편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주도인물인 鄭晋武와 金完根은 순천, 여수, 보성 등지의 농민운동 지도자들과 힘을 합하여, 전라남도 연합 농민단체를 결성하였다. 鄭晋武와 金完根은 1923년 2월 28일 순천, 여수, 보성, 광양 4개 군의 농민운동 주도자들과 순천 喚山亭에서 모여 南鮮農民聯盟會를 창립하고, 그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²⁷⁾ 이들이 남선농민연맹회의 결성에 참여한 것은 전남 농민단체의 후원을 얻기 위한 방책이었다.

1924년 초에 들어서도 광양군 내에 소작인회의 설립이 이어졌다. 1월 8일 골약면 성황리에 300여명의 소작인이 모여 골약소작회를 창립하였다. 이날 골약소작회 임원으로 회장 金容洙, 부회장 吳佶永, 총무 金德明, 이사 金基俊·徐瓊欽가 선출되었다.²⁸⁾

광양 내 소작인 단체가 설립됨에 따라 광양소작인상조회의 회원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923년 말 광양소작인상조회의 회원 수는 3,530명에 이르렀다.²⁹⁾ 이처럼 회원 수가 급증한 것은 소작인들의 전폭적인 참여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주와 유지들의 양해가 있어 가능하였던 것 같다.

광양소작인상조회는 소작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소작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회장제도 하에서는, 지주 출신 혹은 친지주적인 인물이 회장으로 있는 탓에, 소작인들을 위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광양소작인상조회가 1924년 2월 24일 회장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제를 실시한 것³⁰⁾은 이와 관련이 깊었다.

위원제로 바꾼 당일에, 광양소작인상조회는 그 명칭을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변경하였다.³¹⁾ 명칭 변경 후 광양소작인회연합회는 소작인 위주의

26) 『동아일보』, 1924. 3. 6, 3면 5단 <봉강소작갱기> ; 『동아일보』, 1924. 4. 27, 3면 6단, <농민대회>.

27) 『동아일보』, 1923. 3. 10, 4면 3단, <사군농민연맹>.

28) 『동아일보』, 1924. 1. 23, 3면 3단, <골약소작창회>.

29) 전라남도, 『소작관행조사서』, 1923, 123쪽.

30)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7쪽.

31)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7쪽. 이 자료에는 ‘광양노동연합회’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 1924. 5. 21, 3면 6·7단, <광양노동총회>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진무가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대표로 1924년 5월 16일 광양노동연합회의 창립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조선노동총동맹발기회의 건」(1924. 4.19)에 의하면, 정진무가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대표로 조선노동총동맹의 발기에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두 사실에 근거하면, 1924년 2월 24일에는 ‘광양소작인상조회’에서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정식명칭은, 『동아일보』 1924년 3월 5일자 「세풍리 소작인회 창립총회」 기사에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광양소작인회연합회는 공산주의적 색채를 농후하게 띠었고, 회세가 약화되었다.³²⁾ 이는 지주와 지주들의 지시와 강요에 굴복한 소작인의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구성원이 동질화 되고, 운동목표도 일치화 되었으므로,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는 소작인회의 조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 2월 26일 仁德面 世豊里에 세풍소작인회가 창립되었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위원인 金完根은 이 창립회에 참석하여 「농민의 단결」이란 주제의 강연을 함으로써 세풍소작인회의 조직과 발전을 지원하였다.³³⁾

광양소작인회연합회는 1923년 창립되었으나 지주와 사읍의 농간으로 휴면상태에 있던 봉강면소작인회가 1924년 3월 26일 재창립되는 데 기여하였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 위원인 정진무와 김완근은 봉강면 봉당리 노동회관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봉강면소작인회의 更起를 축하하는 강연을 하였다. 재정비된 봉강면소작인회는 위원제로 운영되었는데 서무부 위원은 朴鍾湖·鄭容澹 외 4인, 선전부 위원은 李泰益·朴鍾錫 외 7인, 조사부 위원은 吳珉鎬·朴鍾洙 외 6인이 선출되었다.³⁴⁾

한편 광양에서는 1924년 경 노동회의 창립이 줄을 이었다. 광양노동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광양의 여러 면에서는 노동회나 농민회가 조직되었다. 1924년 2월 21일에는 옥룡면에 옥룡노동친목회가 창립되었다. 이 날 임원으로 서무부의 卞貞燮·呂東起 외 2인, 선전부의 金賢鍾·張基珣 외 5인, 교육부의 徐贊植·張應鍾, 조사부의 安昌燮·徐漢鏡 외 7인이 선임되었다.³⁵⁾ 그리고 1924년 3월 10일에는 仁德面 도월리에 인덕노동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임원으로 서무부 위원 金基奉 외 4인, 선전부 위원 許正植 외 6인, 교육부 위원 金容守 외 4인, 조사부 위원 高應三 외 5인이 선정되었다.³⁶⁾

‘광양소작인회연합회’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선노동총동맹 발기명부 상의 ‘광양소작인회연합회’보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가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정진무 피의자소행조서」(1926. 8.30),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회의사건)』.

33) 『동아일보』, 1924. 3. 5, 3면 2단, <세풍리소작인회창립총회>.

34) 『동아일보』, 1924. 3. 6, 3면 5단. <봉강소작쟁기>.

35) 『동아일보』, 1924. 3. 6, 3면 6단, <옥룡노동창회>.

광양읍에서는 1924년 3월 16일 朴準國, 鄭順和 외 12인이 중심이 되어 광양노동회를 창립하였다. 광양노동회는, 창립총회에서 4개월 이내에 전라 노동연맹회와 남선노동동맹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³⁷⁾ 창립 당시 광양노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³⁸⁾

집행위원장 : 朴準國
 서무부위원 : 朴準國 외 4인
 교육부위원 : 金東燮 외 1인
 경리부위원 : 金昌鎬 외 3인
 선전부위원 : 鄭晉武 외 7인
 조사부위원 : 吳永述
 사교부위원 : 金完根
 상무집행위원 : 朴準國 외 3인

광양노동회는 박준국·鄭順和와 정진무·김완근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런데 광양노동회가 北星會系의 노동단체인 남선노동동맹³⁹⁾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1923년 日本大學에 유학하였던 鄭順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⁴⁰⁾ 그는 일본에 있으면서 1923년 1월에 동경에서 김약수·김종범·안광천 등이 조직한 북성회에 간여하여 활동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한인들이 일본인에 의하여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국하여 1924년 이후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

36) 『동아일보』, 1924. 3. 19, 3면 3단, <인덕노동창회>.

37) 『동아일보』, 1924. 3. 22, 3면 4~5단. <광양노동창회>.

38) 『동아일보』, 1924. 3. 22, 3면 4~5단. <광양노동창회>.

3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2004, 582쪽. 이 글에 의하면 남선노동동맹이 북풍파의 노동단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1924년 초에는 북풍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남선노동동맹을 북성회계 노동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0) 「정순화 피의자신문조서」(1926. 8. 24), 「정순화 피의자소행조서」(1926. 8.30),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회사건)』. 一民, 一光이라고 하는 정순화는 양반출신으로 1903년에 출생하였다. 그는 전남 광양군 옥곡면 광부리 352번지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였다. 그는 1917년 광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22년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남경의 금릉대학에서 6개월간 수학하였으며, 이후 東京의 日本大學에 입학하여 미학과에서 1년을 수학하였다.

다.

1924년 4월 17일에는 광양면에 광양면노동회가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1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그래서 도월노동회의 간부 내정자인 鄭源善과 골약소작인회 간부인 鄭鉉錫이 참석하여 강연과 감상담을 이야기하였다. 임원은 서무부에 鄭容澹외 2인을, 선전부에 李基俊외 4인을, 교육부에 高承柱외 3인을, 사교부에 柳春得외 8인을, 경리부에 姜大錫외 1인을, 조사부에 韓錫教, 金哲周, 吳在善외 7인을 선출했다.⁴¹⁾

1924년 4월 20일 인덕면 도월리에서는 도월노동회가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鄭源善 외 2명이 서무부 위원, 金鶴根 외 2명이 조사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⁴²⁾ 金鶴根은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위원이며, 광양노동회의 위원이던 金完根의 친동생이었다.⁴³⁾

광양지역에 광양소작인회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광양노동회 등의 노동단체가 조직되고,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된 데 영향을 받아,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간부인 정진무 등은 광양소작인회연합회를 광양노농연합회로 발전시켰다. 1924년 5월 16일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간부인 정진무는 광양지역 15개 단체의 대표 26명과 광양노동회 임시회관에 모여 광양소작인회연합회를 광양노농연합회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이어 규약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하였다.⁴⁴⁾

창립대회에 참가한 군소단체와 그 주도인물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9】와 같다.

【표 9】 광양노농연합회 창립 당시 참여한 군소단체와 주도 인물(1924. 5. 16)⁴⁵⁾

41) 『동아일보』, 1924. 4. 27, 3면 6단, <광양에도 노동회>.

42) 『동아일보』, 1924. 4. 27, 3면 5단, <도월노동회, 거20일에 창립>.

43)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6, 3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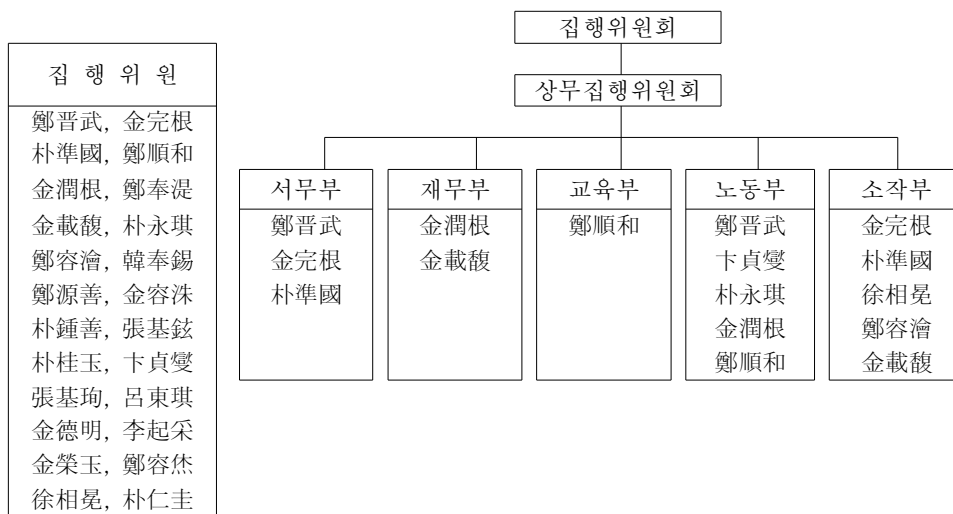
44) 『동아일보』, 1924. 5. 21, 3면 6·7단, <광양노동총회>.

45) 『동아일보』, 1924. 1. 23, 3면 3단, <골약소작창회>; 『동아일보』, 1924. 3. 5, 3면 2단, <세풍소작총회>; 『동아일보』, 1924. 3. 6, 3면 5단, <봉강소작쟁기>; 『동아일보』, 1924. 3. 19, 3면 2단, <옥곡소작총회>; 『동아일보』, 1924. 3. 6, 3면 6단, <옥룡노동창회>; 『동아일보』, 1924. 3. 22, 3면 4단, <광양노동창회>; 『동아일보』, 1924. 4. 27, 3면 6단, <광양에도 노동회>; 『조선일보』, 1924. 4. 7, 4면 4~5단, <다압소작회정기총회>; 『동아일보』, 1924. 4. 27, 3면 6단, <농민대회>; 『동아일보』, 1924. 4. 27, 3면 4~5단, <도월노동회>; 『조선일보』, 1924. 5. 15, 4면 3~4단, <진월노동임사회>; 『동아일보』, 1924. 5. 21, 3면 6~7단, <광양노동총회>를 토대로 작성.

면, 리별	단체명	설립일	주도인물
骨若面	골약소작인회	1924. 1. 8	회장 : 鄭容洙 부회장 : 吳估永 총무 : 金德明 이사 : 金俊基, 徐瓊欽, 李正太
光陽面 世豐里	세풍소작인회	1924. 2. 26	朴鍾璇(善)
玉谷面	옥곡소작인회	1924. 2. 26	회장 : 徐漢忠 위원 : 鄭京和
玉龍面	옥룡노동회	1924. 3. 21	서무부 : 卞貞燮, 呂東琪 외 2인 선전부 : 金賢鍾, 張基珣 외 5인 교육부 : 徐贊植, 張應鍾 조사부 : 安昌燮, 徐漢鏡 외 7인
光陽面	광양소작인회	미상	미상
光陽面 道月里	도월소작인회	미상	미상
光陽面 世豐里	세풍소작동맹회	미상	미상
玉龍面	옥룡면 소작인회	미상	미상
多鴨面	다압소작인회	미상	陳斗永, 朴仁圭, 金容圭
光陽面	광양면노동회	1924. 4. 17	서무부 : 鄭容濬 외 2인 선전부 : 李基俊 외 4인 교육부 : 高承柱 외 3인 사교부 : 柳春得 외 8인 경리부 : 姜大錫 외 1인 조사부 : 韓錫教, 金哲周, 吳在善 외 7인
津上面	진상농민대회	1924. 4. 17 재창립	金峻容, 鄭華範, 朴熺源, 高光倫, 鄭容然
仁德面 道月里	도월노동회	1924. 4. 20	서무부 : 鄭源善 외 2인 조사부 : 金鶴根 외 2인
津月面	진월노동회	미상	徐相冕, 朴允玉, 朴華容
光陽面 德禮里	덕례노동회	미상	미상
광양군	광양노동회	1924. 3. 22	서무부 : 朴準國 외 4인 교육부 : 金東嫻 외 1인 경리부 : 金昌鎬 외 2인 선전부 : 鄭晉武 외 7인 사교부 : 金完根 상무집행위원 : 朴準國 외 3인
계	15개 단체		

광양노농연합회의 설립 시 조직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광양노농연합회 조직도



광양노농연합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가 있었고, 집행위원은 총 24명이었다. 그리고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상무집행위원회가 있었으며 상무집행위원회 아래 서무부, 재무부, 교육부, 노동부, 소작부의 5개 부서를 두었다. 서무부는 조직관리,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 교육부는 회원의 교육과 계몽 활동을 담당하였으며, 노동부는 노동자문제를 담당하였다. 소작부는 소작인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였다.

집행위원은 정진무, 김완근, 박준국, 정순화 등 24명이었다. 이들의 출신을 단체별로 검토해보면, 정진무와 김완근은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간부였고, 정순화와 朴準國은 광양노동회 간부였다. 그리고 鄭源善은 도월노동회, 卞貞燮·呂東琪·張基珣은 옥룡노동회, 鄭容澹는 광양면노동회, 李起采는 옥곡소작회, 徐相冕은 진월노동회, 朴仁圭는 다압소작회, 金德明은 골약소작인회의 간부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192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2회 정기총회에서 조직을 약간 변경하였다. 회원의 喪事 때에 상호부조하기 위해 喪事部를 두고, 조직의 확대를 위해 선전위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⁴⁶⁾

46) 『동아일보』, 1924. 10. 6, 3면 3단. <광양노농 제2정기총회>.

광양노농연합회는 1925년 9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과 상무집행위원을 변경하였다. 집행위원으로는 朴仁圭·李起馨·朴鍾瑄·李起采·鄭源善·張基珣·金完根·卞貞燮·辛命俊·徐相汶·鄭晉武·嚴廷燮·鄭順和·鄭奉湜·金容柱의 15명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서무부에 신명준·김완근, 교양부에 정원선, 노동부에 정진무, 소작부에 장기순이 임명되었다.⁴⁷⁾ 정진무·김완근·정순화는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辛命俊이 새로 집행위원과 상무집행위원에 선임된 것이다. 1894년 생으로 광양군 광양면 인서리 출신인 신명준은 1924년 9월 광양의 정진무·김완근, 순천의 김기수·이영민 등과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1925년 7월 정진무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던 인물이었다.⁴⁸⁾ 이런 연유로 신명준은 광양노농연합회의 집행위원에 참여하였던 것 같다.

광양노농연합회는 1925년 12월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광양노농연합회를 광양노동회와 광양농민회로 분립하는 안건을 채택하였다.⁴⁹⁾ 이는 1925년 11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전개할 전국조직을 따로 조직하기로 한다는 조선노동총동맹 제6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⁵⁰⁾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였다. 이에 따라 광양노동회와 광양농민회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광양노동회는 1926년 2월 28일 鄭晉武, 金完根, 辛命俊, 鄭順和, 朴洙鳳(朴突爭), 金容柱 등이 광양청년회관에서 제 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개선했다.⁵¹⁾ 위원장에 辛命俊(辛亥海)을, 상무위원에 金容柱를, 조직선전부에 朴洙鳳(朴突爭)을, 평의부에 辛明俊, 조사구호부에 羅基彦, 교양부에 金錫琿외 중앙위원 9명을 선출하였다.⁵²⁾ 광양노동회의 조직에 대하여 밝혀진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47) 『동아일보』, 1925. 10. 3, 4면 6단. <광양노농정기총회>.

48) 「신명준 피의자소행조서」(1926. 8.30, 9. 2), 「신명준 피고인신문조서」(1926.12.13), 『정진무 외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 신명준은 1912년 경남 하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부터 하동금융조합 서기, 1916년 말부터 광양군청 회계원, 1924년에는 광양군 해부어업 조합부이사, 1925년 7월부터 미곡상을 경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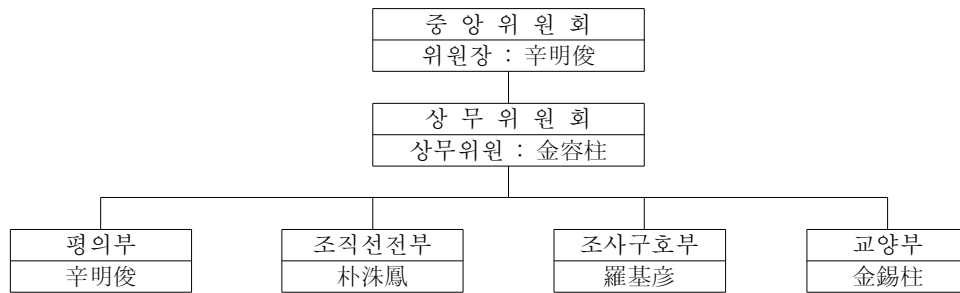
49) 『시대일보』, 1925. 12. 15, 3면 2·3단. <노농총연>.

50)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170쪽.

51) 『조선일보』, 1926. 3. 4, 제2판 1면 7단. <광양노동정총>; 『동아일보』, 1926. 3. 6, 4면 7단, <광양노동정총>.

62) 『동아일보』, 1926. 3. 6, 4면 7단, <광양노동정총>.

【그림 3】 광양노동회 조직도



광양노동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위원회가 있었고, 이를 집행하는 상무위원회가 있었다. 상무위원회는 그 밑에 평의부, 조직선전부, 조사구호부, 교양부를 두었다. 평의부의 업무는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존 서무부를 평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의 인사, 서무, 조직관리,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선전부는 조직과 활동내용 및 담당업무를 대외에 알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사구호부는 노동자의 실태나 작업환경, 작업조건 등을 직접 조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교양부는 조직원의 교육은 물론, 대 노동자 계몽운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광양노동회가 조직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조직변경준비과정에서 1926년 여름 광양노동연합회 주도인물인 鄭晋武, 金完根, 辛明俊, 鄭順和 등이 치안유지법위반(공산당재건투쟁협약사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조직변경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Ⅲ. 광양노농연합회의 활동

1. 소작인 권익 보호 활동

광양소작인상조회는 설립 당일 회의를 열어 군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주들에게 요구사항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실행사항으로 첫째 지세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되 금년 제1기에 이미 지주에게 준 세금은 도로 찾을 일, 둘째 소작료는 토지를 오등으로 나누어 1등은 한 마지기에 1섬, 2등은 한 마지기에 7말 5되, 3등은 한 마지기에 5말, 4등은 한 마지기에 2말 5되, 5등은 한 마지기에 1말로 하고, 셋째 두량할 때는 四角斗를 쓰지 말 것, 넷째 소작료 운반은 10리⁵³⁾ 이내로 할 일, 다섯째 소작권은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 일, 여섯째 지주에게 품삯 없이 노동을 하여주지 말 일을 정하였다. 그리고 소작인으로 본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였다.⁵⁴⁾

광양소작인상조회가 중심이 되어 소작운동을 전개하자, 1923년 5월 6일 金東準 광양군수와 谷虞 광양경찰서장은 지주들을 모아 지주회의를 열고 소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지주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소작인들과 타협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⁵⁾

1. 좋은 땅의 소작료는 10분지 4로 할 일(토박한 땅은 전과 같이 10분지 5로 할 일)
2. 세금은 지주가 부담할 일
3. 두량은 공평히 하되 신두를 사용⁵⁶⁾
4. 소작인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말 일
5. 소작료는 20리⁵⁷⁾까지만 무료로 운반할 일

53) 위의 10리는 1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1리를 보통 10리라 하여 널리 불렸다.

54) 『동아일보』 1923. 1. 21, 3면 4단, <속기하는 소작농민운동, 전라남도 광양군에 분기>.

55) 『동아일보』 1923. 5. 11, 4면 3단, <광양군 지주회의 개최>. 『동아일보』 1923. 5. 12, 3면 3단, <광양소작분쟁>.

56) 되는 1.8L짜리와 2.0L짜리 두 가지가 있었다. 1.8L짜리를 舊되라 하고 2.0L짜리를 新되라 하였다.

57) 위의 20라는 2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리를 보통 10리라 하여 널리 불렸다.

6. 소작권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이작치 못할 일

- 1) 땅을 팔았거나
- 2) 지주의 승낙 없이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 3)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하는 땅의 원형을 바꾸었거나 또는 소작권을 남에게 넘겨 준 경우
- 4) 소작료를 태납한 경우
- 5) 소작인의 태만으로 수확이 현저히 준 때
- 6) 소작인이 사망한 때(그러나 전기 제5항의 사고로 이작하는 경우에는 소작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는 소관 군수의 조정을 받을 사), 전기 각항에 의하여 소작을 이동할 시는 십이월 말일까지 그 연유를 소작인에게 통지할 일
- 7) 지주는 상식 없는 사음을 사용치 말 일
- 8) 천재지변에 의하여 다액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지주가 부담할 사(단 2원 이하는 소작인 부담으로 함)

광양소작인상조회는 1923년 초 소작운동을 전개하여, 지주로부터 소작조건의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주들이 함부로 소작권 이동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기타 소작료의 지급 방식, 두량의 방식에 있어서도 소작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어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다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1923년 봄에 순천군 거주 지주 朴勝奉의 사음 趙鍾文과 金聖初는 소작권을 자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주인 朴勝奉이 이전 소작자에게 소작권을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⁵⁸⁾ 그리고 옥룡면의 많은 지주들은 소작료를 남집하고, 지세공과금을 받아드리고 있었다. 순천의 朴勝林·徐丙奎·金丙玉, 구례의 金鍾顯, 그리고 광양의 洪敬連과 일본인 金谷一二는 5할 이상의 소작료를 받았다. 여수의 金漢昇과 朴致日은 소작료를 5할 이상을 받는 외에, 지세공과금 명목으로 논 매두락에 2, 3두씩 더 받았다.⁵⁹⁾

광양소작인상조회는 지세 징수와 소작료 남집에 대하여 지주에게 항의하여 소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소작인상조회

58) 『동아일보』, 1923. 5. 21, 4면 3단, <소작권이동은 사음의 자행>.

59) 『동아일보』, 1923. 10. 30, 3면 1단, <소작료의 濫執으로 광양에서 불납동맹, 다시 조정을 청구>.

의 金完根, 卞貞燮, 張基珣, 徐漢鳳 등은 옥룡면 상평리 부근에서 200여명의 소작인들과 함께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지주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⁶⁰⁾

- 一. 朴勝林, 徐漢奎, 金丙玉, 金鍾顯, 洪敬連, 金漢昇, 金谷一二 등 8지주에 대하여 소작료를 공평하게 재조정하지 않으면 불납동맹을 실행할 사.
- 一. 소작료 두량은 소작인이 거주하는 동리에서 소작인을 입회시켜 두량을 공평히 하고, 소작료 납부에 대하여는 1리 이내의 지정장소에 납부할 사.

그리고 광양소작인상조회는 1923년 11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의하고 내용을 지주와 소작인에게 배부하였다.⁶¹⁾

- 一. 납입한 소작료는 무효로 하고 4할 이내로 할 것
- 一. 지세와 공과금을 환산하여 소작료에 포함한 것은 일체 폐지할 것.
- 一. 소작료 운반은 10리 이상은 불응할 것.
- 一. 지주가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작료를 불납할 것.

또 광양소작인상조회는 1923년 12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南鮮農民聯盟會위원 朴炳斗의 강연을 듣고 다음과 같이 소작문제에 대하여 결의하였다.⁶²⁾

- 一. 지세 납세를 철저히 실행하되 소작인으로 비밀리에 납세하는 자는 교제를 단절하며 사봉하는 악 사음이 유행 시에는 전군 소작인을 사음가로 소집하여 공중교섭을 행할 사.
- 一. 소작권은 지주가 친정으로 이작하더라도 본회에서 인정할 만한 과실이 무한시에는 신소작인에게 일체 교제를 단절하고, 구 소작인을 위해 공동경작을 할 사.

60) 『동아일보』, 1923. 10. 30, 3면 1단, <소작료의 濫執으로 광양에서 불납동맹, 다시 조정을 청구>.

61) 『조선일보』, 1923. 11. 26, 4면 2단, <광양소작연합회결의>, 『동아일보』, 1923. 12. 3, 3면 1단, <광양소작연합회 강경한 결의사항>.

62) 『동아일보』, 1924. 1. 5, 3면 1단, <광양소작연합회>.

- 一. 불랑지주가 지세공과금을 도조로 환산하여 수봉한 자는 교섭위원 鄭容澹, 李起俊, 卞貞燮, 張基珣, 金完根, 鄭晉武 제씨가 질문하여 추심케 할 사.
- 一. 무리하게 납봉한 소작료는 해면 경관을 입회하여 재두량 후 납봉 분을 환급할 사.
- 一. 소작료 운임과 무상노동을 발견할 시에는 위의 교섭위원이 추심할 사.

1923년 12월 경 여수의 金漢昇이 지세금으로 매 두락당 벼 서말을 받자, 광양소작인상조회의 鄭晉武, 金完根, 卞貞燮은 소작료 수봉장소인 道淸浦로 가서 金漢昇에게 항의하고 더 받은 지세를 감하여주지 않으면 소작료를 불납하겠다고 강경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광양소작인상조회는 金漢昇으로부터 기지급받은 1923년도 지세를 반환받고, 앞으로 지세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⁶³⁾ 또한 광양군 다압면장 鄭鍾模가 구례군의 吳斗善의 사음을 검무하며 소작인들에게 지세금을 받자, 광양소작인상조회의 鄭晉武, 金完根, 卞貞燮은 1924년 2월 9일 전라남도지사와 광양군수에게 鄭鍾模의 직권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하여 지세금을 돌려받게 해주었다.⁶⁴⁾

광양소작인상조회가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바뀐 1924년 2월 이후 광양소작인회연합회는 광양군 내 각 면·리의 소작인회의 조직을 돕거나, 이곳에서 소작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소작인을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는 사람을 파견하여 강연을 해주고 조직방식을 알려줌으로써 광양군내 면·리의 소작인회의 결성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여 지세의 반환, 소작료의 감액, 소작권의 반환 등을 이루어내었다. 1924년 봄 옥곡면의 지주들이 소작인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소작권의 일부를 신소작인에게 이동시키자, 광양소작인회연합회에서는 옥곡소작회장 李起采 등에게 소작인들을 데리고 신소작인에게 찾아가 설득하여 소작지를 도로 찾도록 하고, 불응하면 共同移作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24년 봄 옥곡소작회장 李起采, 부회장 李起俊, 이사 鄭京和 등은 소작인 40여명을 이끌고 신소작인에게 찾아가 설득하여 신소작인 文宗三의 9두락 5승과

63) 『동아일보』, 1924. 1. 5, 3면 1단, <김지주의 각성>.

64) 『동아일보』, 1924. 2. 20, 3면 2단, <남권면장처치로 도군당국에 진정>.

鄭在珪의 3두락, 鄭勳甲의 7두락, 安昌仁의 3두락, 李秉洙의 5두락, 朴章鎭의 4두락을 도로 반환받아 구소작인에게 돌려주었다.⁶⁵⁾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광양소작인회연합회 산하 각 면·리의 소작인회는 광양소작인회연합회의 지도를 받아 소작인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초 옥룡면에서 구소작인과 신소작인의 다툼이 있자, 옥룡노동회는 “소작권 보장에 대해서는 과실 없이 이동하는 악지주에 대하여는 성토하기로 할 것, 신소작인과 구소작인 간에 시비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각 구 위원이 회집하여 신소작인에게 양해를 득하되 만일 불응할 시에는 문제의 소작 답에 대하여 共同移作을 할 것. 신소작인이 소작지에 비료를 한 때에는 구소작인이 비료대를 지불하지 않을 것”⁶⁶⁾이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광양소작인연합회 간부이자 옥룡노동회 간부인 卞貞燮, 呂東琪, 張基珣 등은 소작인 70여명을 모아 1924년 4월 20일부터 5일간 적기를 들고 신소작인을 찾아가 설들을 하고 부재지주 순천의 朴勝林외 20여명의 지주들을 방문하여 소작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지주들이 굴복하여 모두 소작권을 반환받아 구소작인들에게 돌려주었다.⁶⁷⁾

1924년 4월말 경 다압소작인회에서는 金永德에게 지세금을 반환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래도 불응함으로 다압소작인회는 1924년 5월 3일 金永德 집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여기에 진상농민대회 高光倫, 鄭容傑, 姜鎭元이 참석하였다. 이에 金永德은 지세를 반환하겠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 연기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⁶⁸⁾

진상면의 진상농민대회에서는 간부 金俊容, 宣洪根, 鄭容傑외 30여명이 회집하여 지주와 사음을 일일이 방문하여 지세와 소작권을 반환받았다. 지세는 471원 68전을 1924년 4월 7일에 진상농민대회로 반환받기로 하고, 이동시킨 소작권으로 지주 金晟均의 답 9두락과 황병주의 답 5두락과 최복용의 답 1두락과 황연무의 답 1두락과 柳采珪, 柳浣秀 부자의 명의로 그의 대리 宣永龍이 받았던 지세공과금 201원 50전을 1924년 4월 4일(음력)에

65) 『조선일보』, 1924. 4. 20, 4면 5단, <소작간부활동>.

66) 『조선일보』, 1924. 4. 21, 4면 2~3단, <옥룡면소작회결의>.

67) 『조선일보』, 1924. 5. 16, 부록 3판 4단, <옥룡소작간부활동>.

68) 『조선일보』, 1924. 5. 10, 4면 3단, <소작회임시총회>.

반환받기로 하고 그 외에 70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다.⁶⁹⁾

玉谷面에서는 1924년 봄 50여건의 소작권 이동이 있자, 옥곡소작인회 간부들은 지주를 방문하고 반환을 요구하여 30여건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20여건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옥곡소작인회는 1924년 5월 13일 옥곡면 元月里 임시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회장 李起采의 개회사가 있었고 임시의장 鄭京和의 사회하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소작위원을 파견하여 신소작인의 양해를 받고 반환케 하며 만일 불응하면 공동경작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결의에 따라 옥곡소작인회 간부들은 끈질기게 지주를 방문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나머지 20여건의 소작권 이동을 모두 반환받았다. 그리고 기납부한 지세공과금으로 선유리 宋又로부터 10원 34전, 선유리 白永湖로부터 10원 11전을 받아 해당 소작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반환하지 아니한 4백여 명에 대하여는 불원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⁷⁰⁾

광양소작인회연합회가 광양노농연합회로 바뀐 1924년 5월 이후에도 광양노농연합회는 소작인을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소작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실행조건을 마련한 후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1924년 9월 30일 광양노농연합회관 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실행조항을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⁷¹⁾

1. 소작료 분배를 상토는 4할 이내로, 중토는 3할 5분으로, 하토는 2할 5분으로 한다.
2. 지세공과금은 지주의 부담으로 하고 소작인은 절대 불납한다.
3. 소작료 운반은 1리 이내로 한다.
4. 소작료 두량은 구괘를 사용한다.
5. 지주의 무리한 요구의 소작계약은 절대 불응한다.

69) 『조선일보』, 1924. 5. 16, 부록 1단. <진상농민회의 발전>.

70) 『조선일보』, 1924. 5. 24, 4면 5단. <소작임시총회결의>.

71) 『조선일보』, 1924. 10. 7, 3면 2단, <광양노농연합총회, 실행조항을 결의>.

광양노농연합회는 1925년 10월 30일 광양군 내에 있는 400여명의 지주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보내었다.⁷²⁾

보라 紅塵煤煙에 하로도 寧日이 없이 노동하는 노동계급 참상과 春耕夏耘에 寸時의 閑隙이 없이 경작하는 소작계급의 빈곤을, 그들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 血汗을 흘려 勤勤孜孜히 근로하여도 그들은 오직 기함과 빈곤뿐 아니냐. 그 반면에 十指를 부동하는 자본계급과 지주계급은 高樓巨閣에서 錦衣玉食으로 優遊度日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과연 어떠한 모순이며 撞着이 아니냐. 이에서 우리는 종전과 같이 남을 위하여 희생치 아니하고 자기의 生을 擴充하려 한다. 이것이 곧 소작운동과 노동운동이니 이 운동은 快漢의 勢로 전 세계를 풍미하여 자본계급과 지주계급에 대하여 투쟁을 선포하고 대항한 지 已久이었다. 이에서 우리 조선에도 燎原의 세로 이 운동이 전조선 각지에서 치열되어 점차 조직화하여짐은 사회진화의 법칙상 필요한 理勢이다. 그러므로 본 연합회에서는 누차 결의하여 지주 계급에게 반성을 촉함이 再三이 아니었으나 선량한 一二의 지주를 제한 외에는 소작료 징수를 갈수록 愈酷케 할 뿐 아니라 심한 자에 있어서는 소작권을 매도하는 악폐를 감행하며 또한 現行법령소정의 지세, 공과금도 혹은 음적 양적으로 징수하며, 혹은 소작료에 換算收取할 뿐 아니라 소작권 이동을 濫行하여 소작인의 활로를 탈하고, 따라서 산업발전상 심대한 해를 급케 함은 어떠한 방면으로 보든지 실로 용인치 못할 죄악이다. 계급이여 다시 猛省하라. (중략) 1925년 10월 30일

이 경고문에서 광양노농연합회는 지주들이 소작인들의 생존을 위하여 소작료를 올리지 말고,無理하게 소작권을 이동하지 말고, 지세 등을 징수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와 그 산하단체의 간부들은 소속 회원의 소작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24년 초순 진상면 소작회의 간부 金峻容·鄭華範은, 지주 趙觀鉉이 과실이 없는데도 李康春·高光倫이 소작하던 땅을 醫生 李基濬에게 넘기자, 이기준을 찾아가 땅을 李康春·高光倫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하고, 이기준이

72) 『동아일보』, 1925. 11. 14, 4면 1단, <사백지주에 경고, 광양노농연합회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회원들에게 이기준의 약국에서 약을 사지 말도록 벽보를 붙여 권유하였다가 이기준의 고소로 체포되었다. 그 후 김준용과 정화범은 1924년 8월 30일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징역 4월을 언도 받고 불복하여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⁷³⁾

1924년 5월 옥룡면의 옥룡소작회 간부인 卞貞燮·張基珣·呂東琪와 회원 安昌信은 그 지방의 회원이 소작권을 빼앗기자 신소작인 卓禮彦을 찾아가 소작권을 구소작인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신소작인의 고소로, 1924년 7월 28일 변정섭·장기순·여동기·안창섭과 진상면농민회 간부 김준용은 체포되어, 변정섭·장기순·여동기는 협박·가택침입죄로 1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7월 17일 출옥하였다. 이들이 출옥하자 광양노농연합회의 간부와 회원들은 이들을 위로하였다.⁷⁴⁾ 1925년 5월 15일 옥룡면에서 옥룡소작회 제5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광양노농연합회의 간부인 정진무·김완근·정순화·신명준 등은 참석하여 연설을 함으로써 옥룡소작회의 활동을 후원하였다.⁷⁵⁾

1924년 7월 초순 인덕면 덕례리의 지주가 소작권을 구소작인 文豪傑에게서 崔活岩에게 이동하자, 광양노농연합회 간부 金完根과 인덕면노농회 간부 朴桂玉·鄭源善·金錫泰 등은 신소작인에게 소작지를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신소작인이 불응하자, 이들은 인덕노동회의 회원과 함께 소작지에 가서 공동경작을 하였다. 그랬다가 김완근, 박계옥·정원선은 신소작인의 고소로 체포되어 1924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언도받았다.⁷⁶⁾

1925년 봄 옥곡면에서 순천의 지주 金學模가 토지 720두락을 매입하고 매 두락마다 4원 또는 5원을 토지매입 시 등록세 및 잡비 명목으로 더 받

73) 『시대일보』, 1924. 9. 7, 1면 6단, <광양소작쟁의 공소심시 30일에 개정>; 1924. 10. 12, 1면 3단, <진상 소작쟁의>; 『동아일보』, 1924. 9. 4, 2면 7단, <광양소작간부 징역형을 불복>.

74) 『동아일보』, 1924. 8. 4, 3면 8단, <광양소작회 간부 5인 검속>; 1925. 7. 25, 3면 6·7단, <소작 간부환영>.

75) 『시대일보』, 1925. 5. 24, 3면 1단, <광양소작인 제5회총회 결의>.

76) 『동아일보』, 1924. 7. 12, 3면 1·2단, <노농간부방면>; 1924. 9. 10, 3면 3단, <광양노농회 간부 구인>; 1924. 10. 2, 2면 9단, <광양노농공판>; 1924. 10. 3, 2면 4단, <광양군의 노농간부 공소>.

는다는 조건으로 소작권을 신소작인에게 넘기자, 옥곡소작인회는 1925년 4월 26일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지주와 사음을 방문할 소작인단 13명을 구성하였다. 그러자 광양노농연합회 간부들도 방문소작인단에 참여하였다. 방문소작인단의 일개 조는 주암의 지주 金學模, 다른 일개 조는 순천의 사음 金榮玉을 찾아갔으나 이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피신하였다. 방문소작인단은 1925년 5월 5일 金學模가 자택에 돌아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金學模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소작권 박탈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金學模는 “구답에 대하여는 소작권을 이동하지 않겠으나 새로 매입한 답에 대하여는 소작권을 이동하겠으니 관여치 말라”고 하였다. 이에 소작인단은 “소작권 이동이 사음으로 하여금 지세공과금과 등록세 및 잡비 명목으로 매두락에 4원 또는 5원씩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그것이 법에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시비를 가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金學模는 사음이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25년 5월 7일 사음 金榮玉이 자택으로 돌아오자 방문단 21명이 金榮玉 자택으로 찾아가서 金榮玉을 만나 성토했다. 이에 金榮玉이 소작권 전부를 구소작인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승낙서를 작성하여 광양노농연합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소작권 이동과 관련한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 이 소작인단의 순천 방문에 따른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광양 전 지역의 군소노농운동단체와 광양청년회, 광양노농연합회, 옥곡소작인회 회원들이 많게는 1인당 2원, 적게는 1원 미만을 각출하여 소작인단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⁷⁷⁾

그리고 광양노농연합회에서는 1925년 11월 9일 그간 지세공과금을 소작인에게 도조로 환산하여 징수하거나 소작인의 하자가 없는데도 소작권을 이동시킨 동척출장소 金鍾翊, 일인 지주 金谷一二, 지주 朴勝稷, 洪敬連, 金漢昇, 徐丙奎 등 대지주를 위시하여 400여명의 지주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⁷⁸⁾

77) 『동아일보』, 1925. 5. 2, 3면 3단, <옥곡소작총회 작권회복교섭을 결의>; 1925. 5. 11, 3면 2·3단, <옥곡소작쟁의, 주린 배를 움켜쥐고 최후의 담판을 決해>; 1925. 5. 12, 3면 2·3단, <옥곡소작쟁의속보, 일부 작권은 이동한다고, 작인단의 태도는 강경>.

2.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

광양노농연합회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1924년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광양청년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문제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정해진 노동시간과 노동임금을 철저히 지키고, 노동자를 교양시키기로 결정하였다.⁷⁹⁾ 또 광양노농연합회는 1925년 3월 16일 오후 1시 동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노동임금과 노동자 교육에 관한 것을 결정하였다.⁸⁰⁾ 광양노농연합회는 1925년 9월 27일 정기총회에서도 노동문제에 관하여 노동시간, 노동임금, 노동자 교양, 노동단체 조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였다.⁸¹⁾

이에 따라 광양노농연합회 산하 광양노동회 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노동자를 교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 산하 광양노동회의 간부인 정순화, 신명준, 정봉식, 박준국은 1924년 6월 10일부터 광양면과 인덕면의 각리를 순회하며 남녀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여자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移秧에 종사하는 여자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당을 보통 40전, 특별 60전으로 정하려고 하였다.⁸²⁾ 그리고 광양노동회는 1924년 9월 조선노농총동맹의 집행위원인 徐廷禧를 초청하여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광양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에서 서정희는 「현대경제조직과 우리의 생활」, 광양노동회 및 광양노농연합회의 간부인 신명준은 「나의 본 세계상」이란 주제로 200여명의 청중에게 강연을 실시하였다.⁸³⁾ 광양노동회는 1925년 9월 2일 오후 2시 광양청년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노동회의 혁신과 아울러 노동자 교양, 노동자 생활 향상, 노동자 친목에 대한 건을 협의하였다.⁸⁴⁾

78) 『동아일보』, 1925. 11. 14, 4면 1·2단, <사백지주에 경고>.

79) 『동아일보』, 1924. 8. 21, 3면 6단, <광양노동 결의, 제1회정기총회에서>.

80) 『동아일보』, 1925. 3. 20, 1면 1단, <노농연합총회, 16일 광양서>.

81) 『동아일보』, 1925. 10. 3, 4면 6단, <광양노농연정기총회>.

82) 『동아일보』, 1924. 6. 19, 3면 6단, <광양노동 임금실행 선전>.

83) 『동아일보』, 1924. 9. 17, 3면 4단, <현대사조 대강연회, 11일 광양에서>.

84) 『동아일보』, 1925. 9. 9, 3면 11단, <광양노동 총회>.

광양노농연합회 산하로 보이는 광양군 인덕면 도월리의 노동단은 1924년 8월 경, 하루 8시간 노동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도월리 노동단의 단원들은 매일 오전에 윤번으로 자기들의 논에서 제초를 하고, 오후에는 공동으로 목축에 종사하였다.⁸⁵⁾

3. 사회주의단체 조직 및 참여 활동

광양노농연합회와 산하 단체 및 그 주도인물들은 노농단체의 발전과 노농운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라도 및 전국의 노농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광양지방에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청년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들은 노농운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3년 2월 말 순천에서 남선농민연맹회가 조직되자⁸⁶⁾, 광양소작인상조회의 김완근과 정진무가 이에 가입하여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⁸⁷⁾ 그리고 1924년 3월 8일 북성회의 서정희 등이 주도하여 전라노농연맹이 광주에서 창립되자⁸⁸⁾, 광양노농연합회의 정진무·김완근·신명준은 그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⁸⁹⁾

광양노농연합회와 산하 단체들은 전국 노농운동단체인 조선노농총동맹의 조직과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924년 4월 17일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노농총동맹 발기회에 다압면소작회의 朴仁圭, 인덕면세풍소작회의 朴鍾瑄, 도월농민대회의 金容洙, 옥룡면소작인회의 張基珣, 卞貞燮, 광양면소작인회의 鄭學基, 光陽小作人會聯合會의 鄭晉武, 진상면소작회의 金宗根, 골약면농민대회의 金載馥, 李學岐 등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김완근과 정순화는 4월 19일 창립 이후 교섭위원에 선임되었다.⁹⁰⁾ 정진무는 4월 20일 발표한

85) 『동아일보』, 1924. 8. 20, 3면 5단, <광양노동단 8시간 노동 실행>.

86) 『동아일보』, 1923. 3. 22, 4면 4단, <남선농민연맹회 가입자>.

87)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98, 441쪽.

88) 『동아일보』, 1924. 3. 8, 2면 4단, <광주에도 노농연맹 창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사전』 6권, 독립기념관, 2004, 234쪽, 전라노농연맹 항목.

89) 강만길·성대경 엮음, 같은 책, 98, 254, 441쪽.

90) 경성 종로경찰서장, 「조선노농총동맹 발기회의 건」(1924. 4. 17),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50명의 중앙집행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⁹¹⁾ 1925년 11월 1일에 새로 50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광양노농연합회의 김완근과 신명준이 새롭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⁹²⁾

광양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들은 노농단체의 발전과 노농활동의 성공을 위하여 청년단체의 조직과 장악에 힘을 기울였다. 1924년 4월 경성에서 發會한 조선청년총동맹에 광양대표자로 참석하였던 정순화는 광양에 돌아와서 광양노농연합회 간부인 정진무·김완근, 광양노동회 간부인 신명준과 상의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의 주의·강령을 기초로 내규를 작성하고, 1924년 6월 28일 광양노농청년회를 창립하였다.⁹³⁾ 광양노농청년회의 주의강령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주의강령

우리는 인류역사의 필연적 견지에 입각하여 인생본연의 진실한 생을 목표하고 차의 강령을 정함.

- 一. 우리는 계급해방운동의 선구됨을 멸함.
- 一. 노동운동의 축진을 기함.

◇ 임원씨명

- 一. 서무부: 신명준, 정순화, 정진무
- 一. 노동부: 김완근, 박준국, 朴鍾○, 朴洙鳳, 金錫鎔, 成鍾永, 鄭容澹, 林采日
- 一. 지육부: 金昌鎬, 金漢泰

위의 내용에 따르면, 광양노농청년회는 광양노농연합회의 신명준, 정순화, 정진무, 김완근이 주도하였으며, 계급해방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였다. 그리고 이 단체는 北星會 및 서울청년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⁹⁴⁾

91) 『동아일보』, 1924. 4. 21, 2면 1단, <노농총동맹 완성>.

92) 경성 종로경찰서장, 「조선노농총동맹 집행위원 개선의 건」(1925. 11. 2),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93)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5쪽; 『동아일보』, 1924. 7. 5, 3면 6단, <광양노농청년회 창립총회 개최>.

94)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95쪽.

광양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이면서 광양노농청년회의 간부인 정순화는 1919년에 8월 16일 창립된 광양지방청년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1926년 3월 13일, 그는 광양노농청년회의 위원장인 김용주 등과 협의하여 광양청년연맹회를 조직하였다. 광양청년연맹회의 위원장은 정순화였고, 중앙위원은 김용주·정봉식 등이었다.⁹⁵⁾ 그러니까 1926년 3월 광양노농연합회는 광양청년연맹회를 장악함으로써 광양지역의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광양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들은 1925년 4월 4일 동회 회관에서 사상단체인 炬花會를 창립하였다.⁹⁶⁾ 또한 1925년 3월 서울에서 조선민중운동자대회가 개최되자 광양의 광양노농연합회와 산하 광양노동회·인덕면노동대회·진월노동회·옥룡소작회·옥룡노동회·광양면노동회·옥곡소작인회·진상농민대회·다압면소작인회·도월리청년노동단·도월리농민대회·도월리노동회 등은 광양내 연계단체인 광양노농청년회·광양청년연맹·거화회·광양청년회·일광청년회 등이 참여하였다.⁹⁷⁾

더욱이, 광양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들은 노동운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예컨대 정진무는 소작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결사인 조선공산당에 입당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였고, 신명준도 이에 공감하였다.⁹⁸⁾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정진무는 1925년 4월 서울 훈정동의 박헌영 방에서 김재봉 등으로부터 조선공산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⁹⁹⁾ 그리고 신명준은 1925년 7월 중순 광양군 광양면 구내리의 노동회관에서 정진무로부터 조선공산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받고 승낙하였다.¹⁰⁰⁾ 김완근은 1926년 1, 2월 경 조선공산당의 정식 당원이 되었다.¹⁰¹⁾ 鄭順和는 순천의 金基洙의 소개로 1926년 4월 말

95) 『왜정시대인물사료』 4권, 45쪽.

96) 『동아일보』, 1925. 4. 15, 3면 1단, <거화회 창립, 광양에서>.

97) 『동아일보』, 1925. 4. 15, 3면 2단, <민중대회 참가, 광양 각 단체에서>.

98) 「신명준 피의자신문조서」(1926. 8. 22),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사건)』.

99) 「정진무 피의자신문조서」(1926. 9. 8),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사건)』.

100) 「신명준 피의자신문조서」(1926. 8. 22),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사건)』.

101) 「김완근 피의자신문조서」(1926. 8. 24), 『정진무의 22명 치안유지법위반사건(조선공산당재건

경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¹⁰²⁾ 이러한 조선공산당 활동으로 정진무, 김완근, 신명준, 정순화는 1926년 제2차조선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어¹⁰³⁾ 각기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¹⁰⁴⁾

4. 신간회 활동

광양노농연합회의 회원들은, 비타협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자, 신간회 광양지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신간회 광양지회는 1929년 9월 8일 조직되었는데, 이처럼 창립이 늦은 이유는 광양노농연합회 간부인 鄭晋武, 金完根, 辛命俊, 鄭順和 등이 공산당 사건으로 1926년 검거된 후 형을 받아 이때 석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설립 당시 신간회 광양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장	辛命俊
집행위원	
교육출판부장	金載玉
교육출판부원	許敬永
서기장 겸 서무부장	金銓
서무부원	金成學
회계 겸 재정부장	金正基
재정부원	申采鉉
조사부장	金完根
조사부원	卞貞燮
조직선진부장	鄭順和

투쟁협약사건)』.

102) 「정순화 신문조서」(1926. 8. 24), 『정진무의 22명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약사건 :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103) 아세아문제연구소, 「제2차조선공산당검거보고철」,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Ⅱ, 148-149쪽.

104) 강만길·성대경 엮음, 앞의 책, 98, 254, 434, 441쪽 ; 『중외일보』, 1928. 3. 3, 2면 7단, <조선공산당사건 제1심 판결문>.

조직선전부원	金台炫, 金昌鎬, 金錫柱
검사부장	鄭晉武
검사부원	金鶴根

위 인물들 중에 金完根, 鄭晉武, 辛命俊, 鄭順和, 卞貞燮, 金鶴根은 광양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신간회 광양지회는 광양노농연합회의 주도인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것이다.

1930년 9월 말 광양지회의 대표회원은 辛亥海[命俊]였고, 회원수는 38명에 불과하였는데, 광양노농연합회의 정진무가 후보대표회원으로 있었다.¹⁰⁵⁾ 1930년 광양지회의 활동이 약화되었지만, 광양노농연합회의 영향력은 일정하게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1930, 31년 신간회의 해소 분위기 속에서, 광양지회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광양노농연합회원들이 참여한 신간회 광양지회도 결국 1931년에 해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5) 「신간회 대표회원 선거상황에 관한 건」(1930. 10. 11), 『사상에 관한 정보철』 10책.

맺음말

전라남도의 다른 군에 비해 인구와 경지면적이 적었던 광양지역은 소작인의 비율이 높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채지주가 많았다. 부채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지세를 징수하고, 함부로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았다. 따라서 광양지역의 소작인들은 지주에 대한 불만이 심각하였다.

그런데 3·1운동의 결과로 획득한 ‘문화통치’의 공간 하에서,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되고, 1921년 8월에 조선소작인상조회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들은 지회를 조직하고 소작인 등의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광양의 특수한 사정에 영향을 받아, 광양의 소작인인 정진무와 김완근 등은 1923년 1월 광양소작인상조회를 조직하였다. 정진무가 1922년 말 서울에 가서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간부들을 만나고 그 취지서를 갖고 와 지역의 유지들과 협의한 후,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광양지회로서 광양소작인상조회가 설립되었다. 광양소작인상조회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共存共榮을 표방하고, 지주의 소작인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와 소작인의 지주에 온건한 태도를 촉구하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상호부조’를 강조하는 단체였다.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정진무와 김완근은 외부의 후원을 얻기 위해, 1923년 2월 28일 순천농민대회에서 순천, 여수, 보성 등지의 농민운동지도자들과 南鮮農民聯盟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남선농민연맹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전라남도 지방의 농민단체 조직 및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진무와 김완근 등은 광양지역에 소작인단체를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23년 봉강소작인회, 옥곡소작인회, 세풍소작동맹회, 도월소작인회, 광양면소작인회, 다압소작인회, 옥룡소작인회 등이 창립되었고, 1924년 1월에는 골약소작인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23년 말에는 회원수가 3,53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양소작인상조회는 회장제로 운영되었고, 회장 등의 임원진에는

지주와 친지주적인 인물이 다수 포진해 있어 소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정진무 등의 소작인들은 1924년 2월 회의를 열어 광양소작인상조회의 운영체제를 하의상달식인 위원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날 광양소작인상조회의 명칭을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변경하였다.

광양소작인회연합회로 조직이 변경된 후, 지주와 지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소작인들이 이탈함에 따라서 광양소작인연합회의 회세는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구성원이 동질화 되고, 운동목표도 일치되었으므로, 광양소작인연합회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24년에 들어와 광양지역에는 노동회의 조직이 이어졌다. 1924년 2월 옥룡면에 옥룡노동친목회가 설립되었고, 1924년 3월 인덕면에 인덕노동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북성회계의 전라노동연맹회와 남선노동동맹의 도움을 받아, 1924년 3월 16일 정순화·정진무·김완근 등에 의해 광양노동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1924년 4월 18일 전국노동단체로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이 때 광양지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인 정진무는 조선노동총동맹의 발기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鄭晉武는 조선노동총동맹의 방침에 따라 광양 내 노동단체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24년 5월 16일 광양소작인회연합회와 기타 15개 단체의 대표자와 함께 광양노동연합회를 창립하였다.

광양노동연합회는 계획의 심의·의결 및 평가·감사 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실제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상무집행위원회를 두었다. 상무집행위원회는 서무부·재무부·교육부·노동부·소작부의 5개 부서를 두었다. 이 기관을 주도한 인물은 정진무·김완근·정순화 등이었다.

광양소작인연합회와 광양노동연합회는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두 단체는 지주들의 부당한 소작권 이동, 지세 징수, 무료 부역 등에 저항하여, 소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노동연합회는 지방의 군소노동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양노동연합회 주도인물들은 업무방해나 가택침입

죄로 4월, 혹은 1년 등의 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의 핵심 주도인물인 鄭晋武, 金完根, 鄭順和, 辛命俊 등은 북성회계의 남선농민연맹회, 전라노농연맹과 조선노농총동맹 등에 참여하여 이 단체들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광양노농청년회와 광양청년연맹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들은 노농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6년 경 체포되어 1년 내지 2년의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나온 정진무, 김완근, 정순화 등은 1929년 신간회 광양지회를 조직하였다. 비록 신간회가 1931년 해체된 데 영향을 받아 광양지회도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통합적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양노농연합회는 소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농민운동단체였다. 그렇지만 그 주도인물들이 사회주의계 노농단체와 사상단체 및 조선공산당, 그리고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점에서, 이 단체는 민족의 해방을 지향하는 민족운동 단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I)」 1924, 1926

「미포상자 공적조서」, 보훈처, 2005.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 10책」, 경성종로경찰서, 1930.

「의견서」, 경성종로경찰서, 1926.

「피의자소행조서」, 경성종로경찰서, 1926.

「피의자신문조서」, 경성종로경찰서, 1926.

『왜정시대인물사료』.

『朝鮮國勢調査報告』 5권, 조선총독부, 1930.

『朝鮮ノ小作慣行』 상·하·속편, 조선총독부, 1932.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 II,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0.

梁川覺太郎, 『전라남도사정지』 상·하, 전라남도, 1930.

전라남도, 『소작관행조사서』, 전라남도 내무부, 1924.

천도교 『천도교회월보』 57호, 천도교중앙총부, 1915.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1920년대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신간회』, 1997.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김인걸, 『일제하 조선노동운동사』, 일송정, 1989.

김준엽, 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청계연구소, 1988.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운동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4.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6.

이현주, 『한국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일조각, 2003.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조동걸, 『일제하 한국 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3. 논문

강훈덕, 「일제하 국내 소작쟁의와 해외이주농민」, 『한국사학연구』 45호, 2000.

고석규, 「20세기 자은도의 시련과 화해」, 『도서문화』 2호, 2003.

김성수, 「한국노동운동의 생성과정 연구」, 『사회과학논총』 18호, 1990.

김철수, 「일제식민지시대 치안관계법규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29호, 1995.

김태문, 「1920년대 순천지방에서의 소작쟁의와 소작인조합의 성격」,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소순열, 「1920-193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변화」, 『한국지역사학』 15호, 2007.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연구」, 『한국사연구』 15호, 1977.

양희주, 「일제하 조선노동총동맹에 대한 일고찰」,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1.

윤구열, 「조선노동총동맹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경룡, 「192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분화과정」, 『중앙사론』 18호, 1995.

이균영, 「신간회의 분열과 해소운동」, 『쟁점한국근현대사』 4호, 1994.

이종범, 「1920-30년대 진도지방의 농촌사정과 농민조합운동」, 『역사학

- 보』 109호, 1986.
- 전명혁, 「하의도 소작쟁의」, 『성대사림』 15호, 1989.
- 조석곤,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소유권 조사과정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0호, 1986.
- 주봉규, 「일제하 소작쟁의운동의 전개와 본질에 관한 연구」, 『경제논집』 30호, 1991.
- 지수걸, 「일제하 전남 완도·해남지역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교육』 149호, 1991.
-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106호, 1985.
- 진덕규, 「1920년대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성격에 대한 고찰 : 조선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호, 1991.
- 홍영기, 「1920년대 초 조선소작인상조회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호, 1994.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Gwangyang Laborers and Farmers Association

Seo, Yang-Mi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bor movement and national independent movement focusing on the activity of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Especially, this study considers three aspects as follows. Firstly,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Gwangyang at 1920'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Secondly, the organization and main characters of Gwangyang Tenants Mutual Aid Society and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is to be examined. Thirdly, activities for farmers and laborers, socialistic activity and Shingan Association activity of Gwangyang Tenants Mutual Aid Society and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is the final interest of this study.

The tenant rate of Gwangyang region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district in Jeonnam-Do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its inhabitants and lesser acreage under cultivation. Furthermore, Gwangyang region had too many absentee landlords than that of

other region. The absentee landlord oppressed the tenants so harshly on collecting ground rents and transferring tenant right arbitrarily that tenants of Gwangyang region were heavily discontented with their landlords.

Under the "Cultural policy" caused by 3·1 movement, there are some opportunities of helping farmers, tenants and laborers to establish the Chosun Laborers Credit Association(1920. 4) and Chosun Tenant Mutual Aid Society(1921.8). This trend of the times influenced so deeply in Gwangyang region that Jung, Jin-Moo and some tenants of the region organized the Gwangyang Tenants Mutual Aid Society at 1923. Landlords as well as tena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organization with 3,530 members in 1923.

Nevertheless, Gwangyang Tenants Mutual Aid Society had obvious limits to help tenants because of their pro-japanese, pro-landlord characters. This organization ended up re-grouping as local branch of Chosun Tenant Mutual Aid Society. Therefore, Gwangyang Tenants Mutual Aid Society acted passively when tenant related problems got serious at the end of the year 1923.

Jung, Jin-Moo, who was pro-tenant approach, dispatched representatives at Gwangyang region to unify tenants, and he went step further to establish Gwangyang Tenants Association with all representatives in February 24, 1924. Compared to Gwangyang Tenants Mutual Aid Society, which was participated with landlords and tenants together, Gwangyang Tenants Association was exclusively for tenants, and worked exclusively for tenants's sake only. Their members directly run Gwangyang Tenants Association, so consequently, opinions of tenant reflected well.

Furthermore, Jung, Jin-Moo and Kim, Wan-Geun tried to organize tenants society at Gwangyang region. Jung, Jin-Moo and

Kim, Wan-Geun also strive to establish labor Association in Gwangyang region, so they founded Gwangyang Labor Association at March, 1924.

In the mean time, Chosun Farmer and Labor General Confederacy was established in April 18, 1924. Chosun Farmer and Labor General Confederacy wanted to unite all the local organizations, so Jung, Jin-Moo tried to solidify laborer-farmer organizations in Gwangyang region. As a result, he established the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fifteen different organizations at May 16, 1924.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consisted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tanding committee; the former had the deliberate-legislative council and the evaluation-inspection council; and the latter had the general affair section, finance section, education section, labor section, and tenant section. Jung, Jin-Moo, Kim, Wan-Geun, Jung, Soon-Wha were leading figure of those committees.

Gwangyang Tenants Association and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tried to develop interest of farmers and laborers. Those two organizations protested against transferring of tenant right, collecting of rents, and compulsory labor to defend tenant's own rights.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even started the tenancy dispute with the cooperation of small local laborer-farmer Associations. During this movement, main figures of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served their terms of imprisonment on charge of interference in the execution of duty, or housebreaking.

Leading figures of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such as Jung, Jin-Moo, Kim, Wan-Geun, Jung, Seon-Wha, and Shin,

Myung-Jun participated in the Buk Sung Circle and laborer-farmer union, young men union to get aids at developing laborer-farmer movement. They were in part of Chosun Communist Party as well, because of that, they all served their terms of imprisonment between one or two years.

After releasing from prison, Jung, Jin-Moo, Kim, Wan-Geun, and Jung, Soon-Wha founded the Shingan Association 's Gwangyang branch. Even though Shingan Association's dissolution in 1931 resulted early closing of Gwangyang branch, they tried to integrate two different approaches of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those of nationalists and communists.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was the farmer's movement organization focusing tenant's interests. Moreover,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 set their minds to broader purposes like national lib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e activities of Gwangyang Laborers-Farmers Association's member, such as their participation of socialistic farmer-labor association, ideological party, communist party, and Shingan Association.